

제2공항·송악선언 등 제주현안 '주목'

도의회 오늘 제2차 정례회... 30일간 일정 돌입
 도민 갈등 유발 사업 등 관련해 질문 집중될 듯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 해소와 대규모 개발 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제주 현안 향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 행보 본격화와 '송악선언', 상수도과 지하수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문이 예상되면서 원 지사가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12월 15일까지 3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17일부

터 19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이, 20일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이 이어진다.
 도정질문에서는 '정정제주 송악선언'과 원 지사의 대권 도전 행보,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코로나19 대응 제주형 방역과 분야별 대응 방향, 제주형 뉴딜, 상수도·지하수 정책,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구역 개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도정 의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대권 도전을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는 '송악선언'과 관련 배경 및 향후 추진에 대한 실천 의지,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력 담보방안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송악선언' 이후 관광개발 및 투자 유치 방향 등 대규모 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안을 묻는 질문도 예정돼 있어 원 지사가 내놓을 입장이 주목된다.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 행정질문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공무직 처우, 과대과밀학교,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능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마무리되면 올해보다 70억원 늘어난 5조 8299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의 재해 예산안과 1조 1699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관광, 문화예술, 1차산업 등 분야별 대응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부터 3525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 출연금 및 대행사업 편성 적정성 여부 등을 두고 공방과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기에도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오르지까지



돌고래 위험천만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에서 유명하던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돌고래탐방선과 부딪힐뻔한 아찔한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강희만기자

“뉴딜사업, 양보다는
 질적인 면 초점 둘 것”
 원 지사 후속조치 점검

제주 내년도 예산안 5조8299억 편성

지방채 역대 최대 3500억 발행... 도의회 심사 격전 전망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년도 제주형 뉴딜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규모가 큰 대형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고 중앙정부·사업부서·공공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3일 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제주형 뉴딜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최대한 그린 뉴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 과제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뉴딜 담당 인력 확충 등 관련체계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 지사는 “뉴딜사업이 2021년부터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재정여건과 매칭여부 등을 감안해 사업의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제주도의 방향성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주형 뉴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책임 실감 지점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확장재정 요구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지난해보다 소폭(70억원·0.1%) 상승한 예산을 편성,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격전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가 크게 감소하는 등 세입이 줄어 35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된다. 이에 세출 분야에서는 민간보조금 등을 대폭 감액되는 등 긴축 편성이 이뤄졌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재해예방·복구사업 등에 사용되는 가용재원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5조8229억원보다 70억원 증가한 5조829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방향으로 ▷코로나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 등으로 정했다.
 우선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지방세 1조 5224억원 ▷세외수입 1570억원 ▷지방교부세 1조 4291억원 ▷국고보조금 1조 1708억원 ▷지방채 3225억 ▷보전수입 302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세의 경우 전년 대비 387억원 감소한 1조 522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득세(156억), 레저세(216억) 등이 감소하고 등록세(37억), 재산세(95억)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6억원(0.39%) 증가한 157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으로 전년 대비 159억원 감소한 2006억원이 편성됐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내국세 감소에

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2.43%) 감소한 1조 4291억원이다.
 국가보조금은 전기차 민간 보급 촉진(1339억원)에 따라 전년 대비 192억원(1.6%) 감소한 1조 1708억원을 확보했다.
 세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1.42% 감소한 4조 9047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9252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776억원(9.16%)이 증가한 규모이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3903억원(지방채 300억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349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1조 3347억원(22.9%)이 배정됐다. 그러나 문화예술 행사와 민간행사 등의 보조금은 총액에서 30% 이상 줄어 제주도에 문화·예술 관련 행사는 내년도에 올해 못지 않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도, '환경백서' 발간

2년간 환경역사 담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의 추진성과 등을 수록한 '2018·2019 환경백서'를 지난 11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백서는 환경현황 및 주요 환경정책의 추진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제주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1996년부터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번 발간된 환경백서는 제1부

일반현황과 환경정책 추진성과, 제2부 생활환경, 물환경 등 부분별 환경관리, 부록에는 주요 통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1부에서는 ▷제주의 여건 ▷환경관련 종합계획과 제도적 여건 ▷환경정책의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의 제주도 환경변화 및 환경정책 추진 성과를 정리했다.
 제2부에서는 ▷생활환경 관리 ▷물환경 관리 ▷자연환경 보전 ▷환경제도의 운영 ▷환경보전 조사 연구 등의 부분별 환경정책현황과 향후계획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오르지까지 ejoh@ihalla.com

www.booyoungyouth.com

Jeju Booyoung Youth Center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들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 ”
 아름다운 자연속에 추억이 머무는 곳

최고보다 최선을, 성공보다 행복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인성, 진로, 놀이, 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에 참여, 숙박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아름다운 환상의 섬 제주에서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 사고와 꿈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수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전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터전!**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상로17번길 52-17(중문동)
 T. 064-760-5700 F. 064-760-5757